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㉗

이어서 여래출현의 10가지 모습 가운데 '여래의 신업(身業)'에 대한 게송을 보자.

"비유하면 마나사 용왕이 이레 동안 구름 끼고 비 안 내리며 중생들이 하던 일 다 마친 후에 비로소 비를 주어 이익하나니(譬如摩那斯龍王 興雲七日未先雨 待諸衆生作務竟 然後始降成利益) / 십력(十力) 세존 법문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먼저 교화 성숙케 하고 그 뒤에 매우 깊은 법을 말하여 듣는 이를 놀라지 않게 하오며(十力演義亦如是 先化衆生使成熟 然後爲說甚深法 令其聞者不驚怖)."

이 내용은 마치 법화경에서 '중생의 근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비로소 일불승의 차원 높은 법을 연설하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여래의 의업(意業)'에 대해 '허공의 비유'로 말하였다. "마치 허공이 모든 물건의 의지가 되지마는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나니, 여래의 지혜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간 지혜와 출세간 지혜의 의지가 되지마는, 여래의 지혜는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譬如虛空 爲一切物所依 而虛空 無所依 爲一切世間出世間智所依 而如來智 無所依)."

이어서 여래의 지혜가 모든 중생에게 이미 골고루 갖추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고 이상하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奇哉奇哉 此諸衆生 云何具有如來智慧 愚癡迷惑 不知不見고). 내가 마땅히 성인의 도(道)로 가르쳐서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여의고 자기의 몸 속에서 여래의 광대한 지혜가 부처와 같아서 다름이 없음을 보게 하리라"고 하신다. 그리고 결론으로, "만일 허망한 생각을 여의기만 하면 온갖 지혜와 저절로 생기는 지혜와 걸림 없는 지혜가 곧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어리석은 이는 허망한 생각과 집착함으로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이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부분도 선사들이 법문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잘 알려진 '약나무(藥王樹)와 큰 경책(大經卷)의 비유'를 보자.

"설산에 있는 약나무 다하지 않는 뿌리라 이름하여 모든 나무의 뿌리와 줄기 잎새와 꽃과 열매 내나니 / 여기 크나 큰 경책 있어서 삼천 세계와 분량 같은데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며 온갖 티끌도 모두 그러해 / 어떤 총명한 사람이 있어 맑은 눈으로 분명히 보고 티끌 쪼개고 경책을 내어 여러 중생을 모두 이익케 하네."

이처럼 '온갖 곳에 다 있는(無處不至) 여래심'은 화엄학자들이 여래장(如來藏) 사상의 증거로 보아서 '법계연기(法界緣起) 사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여래의 반열반(般涅槃)'에 대한 경문을 보자. 이른바 '출현하시나 열반하시나 항상 고요한(出沒常寂) 모습'이다. "불자여, 부처님 여래는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사모함을 내게 하려고 열반함을 보이지마는, 여래는 참으로 세상에 출현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느니라(佛子 諸佛如來 爲令衆生 生欣樂故 出現於世 欲令衆生 生戀慕故 示現涅槃)."

"이는 세상 뛰어난 제일 보배며 이는 여러 중생 구제할 이며 이가 능히 청정한 도를 내리니 그대들이 지니고 방일치 말라(此爲超世第一財 此能救度諸群品 此能出生淸淨道 汝等當持莫放逸)."

망념 여의면 지혜 나타나

불성 누구나 지녀 … 방일 말고 수행하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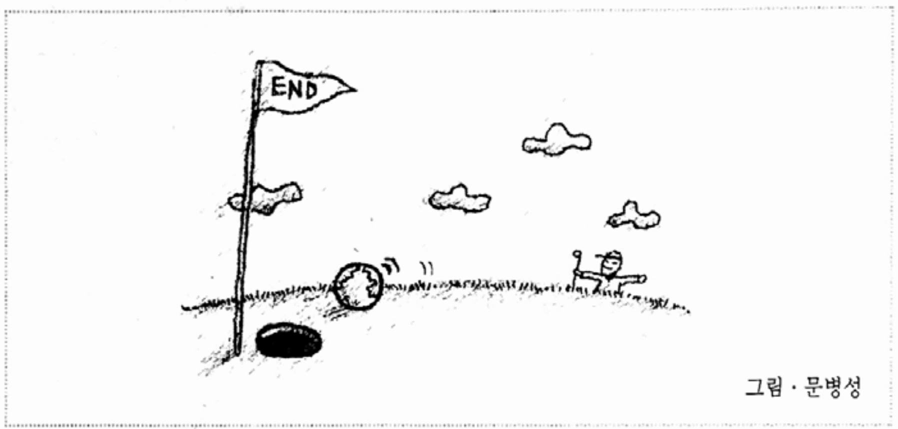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연기사상, 환경위기 탈출구

불교와 과학 〈46〉

환경문제

산업사회 과학 기술 물질 풍요 이뤘으나 인간소외 · 생태파괴 이기심 · 허영의 수렁

후기 산업사회라고 불리는 오늘의 문명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강요된 희생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자조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구도와 약육강식론이라는 오늘의 산업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구조적 이해는 서구 문명사에 대한 역사적 조망 아래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반드시 대안을 찾아 나서는 위기 해결의 적극적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그러한 질문은 직접적인 해결책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질문은 직접적인 해답을 강요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아닌 것으로 알고, 문제가 되는 것을 진짜 문제로 삼고 풀어 가려는 올바른 문제 상황의 진입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역사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환경 문제이다. 오늘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인간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 지구적인 환경 파괴 문제 그리고 경제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 나의 삶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 질문은 왜곡된 이 시대의 신념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과학과 기술이 오늘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오도된 신념들을 비판하는 문명비판은 여전히 소수의 불평으로만 여겨지고 있다. 진짜 심각해져만 가는 현대 문명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는 희망찬 문명 옹호의 과학주의 미래학에 밀려가고만 있다. 문명비판과 문명 옹호가 공존하는 사태의 한 사례가 바로 오늘의 환경문제이다.

이제 환경 문제를 단순히 쓰레기 종량제나 우유팩 모으기 혹은 계몽 차원의 자연보호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 먼저 오늘의 환경 위기의 정신적 배경을 제공한 물질문명의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회적 안목이 요구된다. 동시에 자연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생태학적 안목이 요구된다. 환경 논의에서 생태학은 매우 중요하다. 살아 있는 생명의 생태계를 죽어 있는 무생명적인 기계처럼 다루는 일일랑 그만두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의 실증주의적 사연(使然)의 피폐함을 지적하고 자연의 호흡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안목이다.

예를 들어보자. 좁은 이 땅에서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 그 비싼 회원권을 사야 하고,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산림이 파괴되고 그 와중에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이 오간다.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기도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경우도 나온다. 그렇게 만든 골프장의 외국잔디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 지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해가 갈수록 더 센 농약을 뿌려야 한다. 그러니 비 올 때마다 잔류 농약이 흘러 내려가 마을의 수원지를 오염시킨다. 싸움에 지친 골프장 주변의 농민들이 하나둘씩 보상금 몇 푼 쥐고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정부와 언론 매체는 이를 사회 문제라고 매도한다. 농약은 근처 하천으로 흘러와 결국은 대도시 상수원 보호 구역까지 오염시켜 도시 사람이 집에서 마시는 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이름 모를 관절통이나 암에도 걸릴 수 있게 되자 부자들은 몇 백만 원 하는 정수기를 들여와 빈부간의 위화감을 만들어 더 큰 사회 문제를 낳는다. 결국 골프와 수돗물 오염 사이의 생태적 인과 관계, 골프장과 사회 문제 사이의 생태적 인과 관계가 너무 멀어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허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생명의 생태학적 인과의 끈들을 잘라 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오는 인간 소외는 말할 것도 없으며,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생태학적 인과의 끈은 과학적 인과관계와 달리 매우 우회적이고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끈을 되살려야만 우리 현대문명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생태학적 인과관계는 진여의 인과 관계인 연기의 틀과 그 모습을 같이 한다. 그래서 현상적인 물질의 인과 관계에 눈이 어두워 몸이 팔려 가는 현대문명의 아픔은 생태학적 관계를 수용할 때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다. 불교의 이야기를 단순히 너무 멀고 추상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과의 긴 끈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개발의 도구로서 겉치레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의 생태학적 사유 방식이 비록 물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가장 빠른 환경 위기 탈출의 길임을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이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타종교 이해할 때 폭력 · 갈등 사라진다

지구촌 불교 / 美 종교지도자회의

불교 · 기독교 · 이슬람 등 700여명 모여 테러 희생자 추모 … 종교간 대화 역설

미국 테러 참사가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24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리하이(Lehigh) 계곡에 700여 명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였다. 이곳 유대교 교당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시크교 등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테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종교의 역할을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를 마련한 크리스틴 넬슨(Christine Nelson) 목사는 "리하이 계곡에서 전례 없는 종교지도자 모임을 계획한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오해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미국 종교계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종교지도자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리하이 계곡에 개원된 30여 수행기관의 협의회 회장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미국의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종교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리하이 계곡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각 종교의 수행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날 펜실베이니아 불교계 대표로 참석한 케빈 워텔(Ven. Kevin Wartell) 스님은 "문명 간 차이가 폭력적 충돌을 이끌어 왔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20세기에 가장 폭력적인 충돌은 문명들 안에서 일어났다"며 "역사적으로 전쟁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종종 왜곡되어 왔고, 위정자가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데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스님은 리하이 계곡에서 베스엘(Beth Ell)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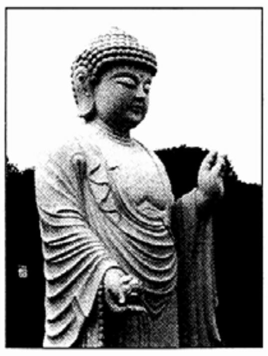
엘타운시에서 성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차드 포드(Rev. Richard J. Ford) 신부는 "진정한 종교간 대화는 개인의 종교성을 심화시켜, 이웃 종교와 평화롭게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며 "이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연방, 세계로 확대될 때 진정한 종교 화해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대교 협의회 의장인 필리스 미덴도르프(Phyllis Middendorf)는 "어느 시대에서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삶의 방식을 잃지 않았다"며 "이 방식이야 말로 인류 발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닝 콜(Morning Call) 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나 가치가 특정 종교나 문화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세계화 시대에 오히려 서로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선 과거보다 더 문화적 차이가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평가하고, "이해와 상호 존중의 원칙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임을 재확인하고, 인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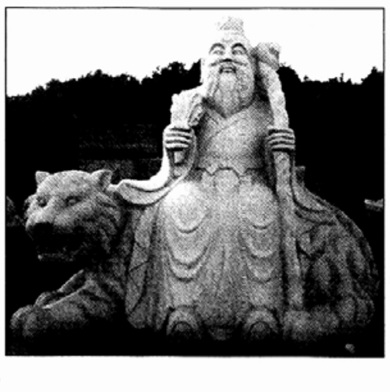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추동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가 방 :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 분	판매가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 · 여	150,000
	두루막	남 · 여	130,000
	동 방	남 · 여	120,000
누비	上 下	남 · 여	190,000
	두루막	남 · 여	160,000
	방한복	남 · 여	130,000
	보온복	남 · 여	70,000
장 삼 (조계종 태고종)		남 · 여	220,000
손가방		中	28,000
		小	23,000
마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 화 : 053)764-4114 H · P : 011)9850-4400